

##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과 완충 요인 -한국과 일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박천만<sup>†</sup> · 오카다 세츠코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 The Study of the Risk and Buffering Factors Related to Maltreatment -Focusing on Parenting Mothers in Korea and Japan-

Chun Man Park<sup>†</sup> · Setsuko Okad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daily hassles (PDHs), parenting burden and maltreatment as perceived by Korean and Japanese mothers raising children.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upport,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n child maltreatment were also reviewed.

**Methods:** Data were gather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given to the mothers using the childcare center in both countries. As for the final procedure, 820 Korea and 700 Japan mothers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Result:** The results showed that in both countries, parenting burden caused by PDHs significantly affected physical and mental maltreatment. parent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as a buffering factor could inhibit mental maltreatment. However, among buffering factors, Korean parenting mothers chose parenting efficiency and Japanese parenting mothers did parenting satisfac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it is needed parenting mothers are offered on opportunity to take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to understand their child's behaviors and learn parent's roles of parenting. In addition, local community support is desired.

**Key words:** Maltreatment, Parenting Burden, Parenting Daily Hassles(PDH),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upport,

접수일 : 2015년 8월 9일, 수정일: 2015년 8월 24일, 채택일: 2015년 8월 31일

교신저자 : 박천만(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5451 FAX: 053-580-5164 E-mail: cmpark@kmu.ac.kr)

\* 이 연구는 2011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1. 서론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는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를 위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어린이에게 권리 주체로서의 위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학대나 차별·편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이 권리조약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2년이 경과한 1991년에 비준하였고, 일본에서는 1994년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일 양국 모두 성인에 의한 어린이의 권리침해나 부적절한 양육행태의 발생빈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절대적 빈곤의 시대와는 달리 그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직도 자녀를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다(才村純, 2005). 또 극단적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특징도 유사하다. 이러한 가운데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현저한 증가는 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적절한 양육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해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보호자의 양육관련 행동을 의미한다.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모친의 우울증이나 불안, 약물의존과 남용 등과 같은 정신병리적 요인이나 부모의 피학대 경험, 불만족감, 낮은 자존감 등 가해자 측의 단일요인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冬木春子, 2000). 그러나 근년에 들면서 부적절한 양육행동 발생을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모친의 정신병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학력, 가족구성이나 취업상태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의 건강상태, 부모의 피학대 경험 등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분석하고 있다(여진주, 2008; Yosida, 2002). 또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억제하는 보상요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손수민, 2009; 이정화 등, 2012; Miyamoto, 2008; Watanabe와 Ishii, 2005). 최근에는 복수의 요인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행동 발생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행동이나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양육에 대한 지원 등을 모친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중시하고 있다(김현희 등, 2009; 唐軼斐, 2007).

본 연구의 이론모델은 Lazarus 등의 스트레스 인지이론에 바탕을 둔 Hillson 등(1994)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의 반복적인 경험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때로는 일시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사건적(eventful)인 경험보다도 더 중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발생빈도보다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자각하는가 하는 강도(정도)가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한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희 등, 2009). 이렇게 볼 때, 양육 스트레스상태를 일으키는 요인, 즉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Parenting Daily Hassles(PDH)와 양육부담감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육 중인 모친은 스트레스가 유발될 때마다 다양한 대응자원을 활용한다. 그 중에는 사회적 맥락에서 제공되는 외적 자원인 양육지원(parenting support)이나 양육에 대한 모친 자신의 내적 자원인 양육효력감(parenting efficacy) 또는 만족감(satisfactio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외적 또는 내적 자원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요인이 되고, 아동학대와 같은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모자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유아기 어린이를 양육하는 모친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각하는 PDH 및 양육부담감과 부적절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동시에 양육 지원과 양육효력감 및 양육만족감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완충효과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연구대상은 한일 양국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 전 유아의 모친으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대구시의 8개 행정구에서 각각 1곳씩 무작위로 추출한 8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모친 1,2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시즈오카시(靜岡市) 남부지역에 위치하는 모든 보육시설 10곳을 이용하는 아동의 모친 1,3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와 시즈오카시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중남부에 위치하는 광역시와 정령지정도시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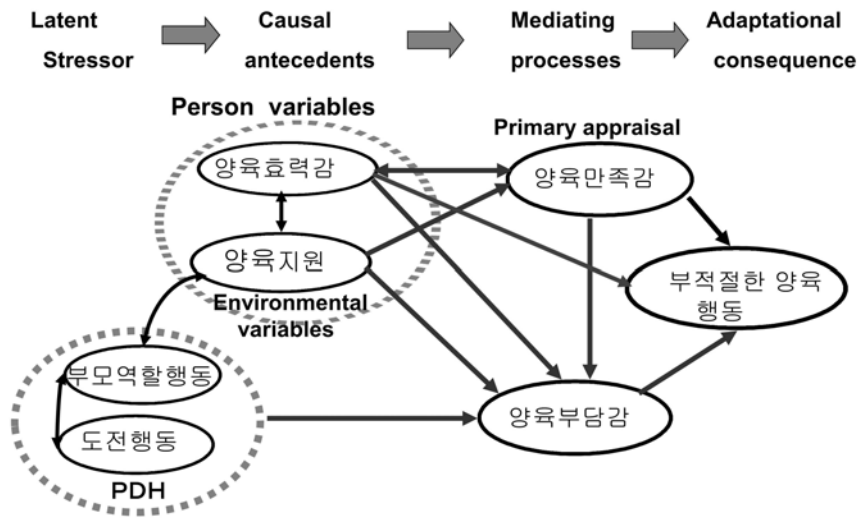
조사방법은 양국 모두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법으로, 조사표는 회수용 봉투와 함께 보육시설 원장을 통해 조사에 동의를 얻은 모친에게 배부하였다. 배부 후 7일 동안 회수기간을 정하여 응답지를 봉투에 넣어 자유롭게 각 보육시설에 비치한 투고함에 넣도록 하였다. 회수된 조사표는 한국은 1,058부(회

수율 85.5%), 일본은 948부(회수율 70.4%)였다.

조사 기간은 한국에서 2012년 7월~8월의 4주간, 일본에서 2012년 9월~10월의 약 5주간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원에서 유학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일본어판을 작성한 후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그것을 일본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였다. 조사를 실시할 때에 윤리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조사의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자들에게만 조사를 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보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기입한 조사표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봉인하여 회수함에 넣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녀 양육 중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PDH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모친의 양육부담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유발한다. 반면,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은 상호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양육부담감과 부적절한 양육행동 쌍방의 완충요인이 된다. 또한 양육지원도 양육부담감을 저하시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유발을 억제한다. 따라서, PDH행동을 저하시키고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을 높이는 양육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조사내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취업의 유무, 세대구성, 자녀의 수, 대상자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의 6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PDH는 양육할 때 일상적으로 짜증나거나 성가신 일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Cmie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 parenting daily hassles scale(PDHS)로 측정하였다. PDHS는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들(parenting tasks, 이하 ‘부모역할행동’이라 한다)에 관한 7항목과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동의 특성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아동의 행동(challenging behavior, 이하 ‘도전행동’이라 한다)에 관한 7항목의 총 14항목으로 구성되며, 최근 6개월간에 PDHS경험의 강도(Intensity)에 대해 ‘전혀 짜증나지 않는다’ 에서부터 ‘매우 짜증난다’까지의 5점 척도로 질문하여 0~4점을 부여하였다.

양육부담감에 관해서는 모친이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中嶋和夫 등(1999)이 개발한 양육부담감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친이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을 ‘양육

에 의한 사회적 활동 제약감정’ 4항목, ‘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 4항목, ‘양육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 4항목 등 총 1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은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전혀 없다(0점)’부터 ‘언제나 겪는다(4점)’까지의 5점 척도로 묻고 있으며, 득점이 높을수록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예방적 개입에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양육의 긍정적 측면을 양육만족감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측정 척도는 Aramaki(2003)의 양육만족감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8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득점이 높을수록 양육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효력감의 측정은 Bandura에 의해 제시된 자기효력감(self-efficacy)의 정의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발달에 관한 이해 4항목,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control) 6항목, 양육환경관련 5항목의 총 3영역, 1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자신이 없다(0점)’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3점)’

까지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점이 높을수록 양육효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양육지원 척도는 그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관점이 제안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단적 지원(실제적 도움)과 정서적 지원(정신적인 격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kajima 등(2000)이 고안한 양육지원 척도를 참고로, 자녀양육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와 제공하여 주는 지원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측정척도는 '수단적 지원' 7항목, '정서적 지원' 5항목의 총 12항목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의 응답은 '지원이 없다' 혹은 '매우 불만족스럽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3점)' 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대(abuse)보다 넓은 개념인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내고, 측정에는 唐軼斐 등(2007)이 개발한 Maltreatment 경향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5항목,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7항목, neglect행동 3항목의 총 1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근 1개월 이내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를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의 5점 척도로 묻고,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였다. 따라서 고득점일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 4) 분석방법

통계분석에는 조사 대상자의 기본특성 및 상기 6가지 척도의 각 항목에 결손치가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자 수는 한국 820명과 일본 700명으로 전체 1,520명이었다. 분석 방법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척도 구성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였다.

첫째, 각 척도에 대한 모델 구축을 위해 탐색적 인자분석을 수행하였다. 관측 변수의 선정에 있어

인자부하량은 0.4이상, 각 인자에 속하는 항목은 5항목을 상한으로 두었다. 이 결과 1차적으로 구축된 인자구조모델의 적합도와 신뢰도를 확인적 인자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모델적합도 판정에는 GFI, AGFI, CFI, RMSEA를 채택하였다. GFI 및 AGFI CFI는 1.0에 가까워질수록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그 모델이 충분한 설명력이나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RMSEA는 0.08이하라면 해당되는 모델이라 판정한다. 각 척도의 신뢰성(내적 정합성)은 豊田(2001)를 참고하여 Cronbach의  $\alpha$ 계수가 0.65이상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탐색적 인자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6개의 척도구성 항목은 <표 1>에, 확인적 인자분석을 통해 검토한 척도의 적합도와 신뢰도는 <표 2>과 <표 3>에 나타내었다.

PDH척도는 '부모역할행동' 4항목과 '도전행동' 4항목을 사교(斜交)모델로 하는 인자구조모델로 구성되었으며, 적합도는 양국 다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모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한국이 부모역할행동 0.717, 도전행동 0.685, 일본이 각각 0.741, 0.688이 있었다.

양육부담감 척도는 '사회적 활동 제한감' 4항목, '자녀에 대한 거부감' 4항목, '양육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 4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측변수 각 4항목을 1차 인자, '양육부담감' 을 2차 인자로 하는 인자구조모델의 적합도는 양국 다 양호한 수준이었다. 양육부담감에 관한 인자구성 모델의  $\alpha$  계수는 한국이 0.837, 일본이 0.861로 양국 모두 하위인자는 통계적으로 허용범위에 있었다.

양육만족감 척도는 5항목으로 구성되며 인자 모델의 적합도는 양국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양육만족감을 구성하는 5항목을 측정 척도로 했을 때의  $\alpha$  계수는 한국이 0.878, 일본이 0.872이 있었다.

양육효력감 척도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 4항목, '자녀에 대한 통제' 3항목, '양육환경정비' 3항목의 각 인자를 1차 인자, '양육효력감' 을 2차 인자

로 하는 인자구조모델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양육효력감에 관한 인자구조모델의  $a$  계수는 한국이 0.879, 일본이 0.876으로 양국 모두 하위인자는 통계적으로 허용범위에 있었다.

양육 지원의 척도는 ‘수단적 지원’ 4항목, ‘정서적 지원’ 5항목을 사교모델로 하는 인자구조 모델의 적합도가 양국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양육 지원에 관한 2인자 모델을 측정 척도로 보았을 때  $a$  계수는 한국이 수단적 지원 0.821 정서적 지원 0.801, 일본이 각각 0.810, 0.864였다.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척도는 탐색적 인자분석 결과, 인자 부하량 .4이상을 충족시키는 항목은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4항목과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5항목이었다.  $a$  계수는 한국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0.666,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0.769, 일본이 각각 0.715과 0.792였다. ‘방임’ 3 항목은 인자 부하량이 모두 0.4

미만이었으며,  $a$  신뢰성 계수도 매우 낮았다(한국: 0.467, 일본: 0.464). 따라서, ‘방임’ 3항목을 제외하고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4항목과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5항목을 사용하여 확인적 인자분석을 행한 결과, 이 2인자를 사교모델로 하는 인자구조 모델의 적합도가 양국 모두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양육행동발생 요인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요인이 직접 효과 또는 간접 효과를 미치는지, 또는 위험요인인지 완충요인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관계도 검토하였다.

모델적합도 판정에는 GFI, AGFI, CFI, RMSEA를 채택하였으며,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Wald검정에 의한 기각비 (Critical Ratio; C.R.) 로 판정하며 그 절대치가 1.96이상 (유의수준 5%미만) 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Ver.18 및 AMOS Ver.18을 사용하였다.

<표 1> 확인적 인자분석에 의해 선택된 척도의 하위항목

구분	no	항 목		
P D H	x4	집안 일이나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아이가 방해한다.		
	부모역할 행동	x5	아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나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x7	외출 준비를 할 때나 시간에 맞춰 아이를 외출시키는 것이 힘들다	
		x8	아이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헛수고가 늘어난다	
	도전행동	x9	아이가 시끄럽게 조르거나 운다	
		x10	아이가 내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	
		x13	어른끼리 얘기하는데 아이가 방해를 해온다	
		x14	외출시(시장 볼 때,외식 등) 아이가 조용하지 않다	
	양 육 부 담 감	사회적 활동제한	x1	아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생활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x2	아이를 보는 것이 ,일상적인 가사보다 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x3			아이를 보느라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느낀다	
x4			아이때문에 취미나 학습 등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아동에 대한 부정		x5	아이와 관련해서 화를 내는 일이 있다	
		x6	아이에게 해 주는 것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x7	아이가 하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x8	아이와 관련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욕한 적이 있다	

구분	no	항 목	
경제적 압박감	x9	양육을 위해 저금해 둔 돈까지 쓰게 되고, 장애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	
	x10	양육에 드는 비용이 가계를 힘들게 한다고 느낀다	
	x11	양육에 드는 지출때문에 ,여유있는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느낀다	
	x12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느낀다	
양육 만족감	x1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다	
	x2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	
	x3	아이를 키우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	
	x4	양육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있다	
	x5	양육을 통해 아이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양육 효력감	발달이해	x1	아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장난감이 적합한지 알고 있다
		x2	아이의 언어 발달을 어떻게 촉진시키면 되는지 알고 있다
		x3	발달상태에 따라 아이가 어떤 것에 공포를 느끼는지를 알고 있다
		x4	아이의 운동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고 있다
	적절한 대응	x5	어떤 상황에 아이가 짜증을 내는지 알고 있다
		x6	아이 울음 소리에 따라 각각 어떤 요구인지를 알 수 있다
		x7	아이의 고통, 피곤함, 아픔, 지루함, 욕구불만 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육아환경 조성	x13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아이를 참여시킬 수 있다	
	x14	새로운 일에 아이의 관심이 향하도록 할 수 있다	
	x15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가도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양육 지원	수단적 지원	x2	육아에 지쳤을 때, 대신 집을 봐 준다거나 간단한 용무를 쉽게 부탁할 사람이 있다
		x5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x9	가사 일이 바쁠 때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정서적 지원	x10	하루 이상 외출할 때 대신 육아를 맡아줄 사람이 있다
		x3	당신의 육아에 대한 노력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
		x4	육아하면서 생긴 걱정거리를 자기 일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x7	육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당신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x8	육아하는 당신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x12	당신의 육아 방법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		
부적절한 양육 행동	신체적	x1	손바닥을 때릴 때가 있다
		x2	엉덩이를 때릴 때가 있다
		x3	얼굴을 때릴 때가 있다
		x4	머리를 때릴 때가 있다
	정신적	x6	상처 줄 만한 말을 한다
		x7	무시한다
		x8	칭찬하기 보다는 화를 낼 때가 많다
		x10	아이에게 화풀이를 한다
		x12	큰 소리로 나무란다

<표 2> 각 척도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구 분		$\chi^2$	d f	GFI	AGFI	CFI	RMSEA
P D H	한국	40.267	19	0.988	0.977	0.984	0.037
	일본	48.819	19	0.984	0.967	0.978	0.047
양육부담감	한국	195.953	51	0.962	0.942	0.966	0.059
	일본	208.490	51	0.949	0.922	0.962	0.066
양육만족감	한국	55.286	5	0.969	0.907	0.971	0.099
	일본	47.140	5	0.978	0.935	0.979	0.090
양육효력감	한국	137.453	32	0.967	0.943	0.969	0.063
	일본	125.867	32	0.964	0.939	0.966	0.065
양육지원	한국	145.926	26	0.963	0.935	0.953	0.073
	일본	153.284	26	0.956	0.923	0.958	0.074
부적절한 양육행동	한국	145.915	26	0.960	0.932	0.931	0.075
	일본	164.795	26	0.948	0.909	0.923	0.087

<표 3>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	Cronbach's $\alpha$	
	한국(820)	일본(700)
PDH		
부모역할 행동	0.717	0.741
도전행동	0.685	0.688
양육부담감	0.837	0.861
사회적 활동 제한감	0.853	0.866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	0.789	0.778
양육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	0.865	0.884
양육만족감	0.878	0.872
양육효력감	0.879	0.876
발달에 대한 이해	0.783	0.830
적절한 대응(통제)	0.807	0.787
양육환경조성	0.812	0.778
양육지원		
수단적 지원	0.821	0.810
정서적 지원	0.801	0.864
부적절한 양육행동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0.666	0.715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0.769	0.792

### 3. 결과

#### 1) 응답자의 기본 특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한국 34.6세(평균편차 3.45, 범위 26-51), 일본 34.0 (표준 편차 4.33, 범위 21-47)이었다. 한 세대 당 평균 자녀수는 한국 1.9명(표준 편차 0.58, 범위1-4), 일본 1.8명 (표준 편차 0.72, 범위 1-4)이며, 모친의 연령, 자녀 수 평균치는 양국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자녀수는 '2명' 이 한국 66.3%, 일본 49.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1명' 이 한국 21.3% 일본 35.1%였다. 취업은 한국에서는 '유직' 이 38.4%, '무직' 61.6%였고, 일본에서는 각각 74.3%와 25.7%로 나타났다. 세대 구조는 양국 모두 '핵가족 세대' 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대', '1인 부모세대', '그 외' 의 순이었으나, 핵가족 세대의 비율은 한국이 87.1%로 일본의 74.6%보다 높았다. 모친의 건강상태는 '좋다' 라는 응답이 한국 42.6%, 일본 40.6% , '보통' 이 한국 54.8%, 일본 53.8%, '나쁘다' 가 한국 2.7%, 일본 5.6%로 나타나 일본의 모친이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좋다'는 양국 다 10%이상 (한국 10.7%, 일본 13.6%)이었으나, '보통'은 한국이 76.5%인데 비해 일본은 55.3%,

'어렵다'는 응답은 한국 12.8%, 일본 31.1%로 나타나 일본의 모친들이 스스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기본 특성

기본특성		한국 (n=820)	일본(n=700)
어머니의 연령	평균연령	34.60(SD=3.45) 범위26~51	33.98(SD=4.33)범위21~47
1세대 당 자녀 수	평균 인원	1.91(SD=0.58) 범위1-4	1.82(SD=0.72)범위1-4
취업상황	유직 (정규직, 비정규직)	315(38.4)	520(74.3)
	무직(전업주부)	505(61.6)	180(25.7)
세대구조	부부와 자녀	714(87.1)	522(74.6)
	한부모와 자녀	11( 1.3)	42( 6.0)
	자녀와 부부, 그리고 그 부모(친가, 외가)	89(10.9)	107(15.3)
	그 외	6( 0.7)	29( 4.1)
자녀 수	한 명	175(21.3)	246(35.1)
	두 명	543(66.3)	346(49.5)
	세 명이상	102(12.4)	108(15.4)
어머니의 건강상태	좋음	349(42.6)	284(40.6)
	보통	449(54.8)	377(53.8)
	나쁨	22( 2.7)	39( 5.6)
현재 경제상황	좋음	88(10.7)	95(13.6)
	보통	627(76.5)	387(55.3)
	나쁨	105(12.8)	218(31.1)

## 2) 척도별 득점 수준에 대한 분석

각 척도의 합계 득점에 대한 평균치는 <표 5>에 나타났다. 각 척도에 대한 평균 득점 경향을 보면, 한국에서는 PDH의 부모역할행동 평균이 4.44(표준편차 2.46), 도전행동 평균 6.49(표준편차 2.55), 일본은 각각 5.97(표준편차 2.69), 6.50(표준편차 2.62)로 부모역할행동에서 일본의 득점이 높았다. 양육 부담감에서는 한국의 평균이 22.16(표준편차 6.63)으로 일본의 14.51(표준편차 6.25)보다 월등히 높았다. 양육만족감에서는 한국이 12.38(표준편차 2.51)로 일본의 11.47(표준편차 2.77)과 큰 차이는 없었

으나 양육효력감은 한국이 13.99(표준편차 5.39)으로 일본의 11.61(표준편차 5.20) 보다 높았다. 양육 지원의 경우, 한국이 수단적 지원 4.40(표준편차 3.89), 정서적 지원 7.42(표준편차 3.84)로 일본의 6.79(표준편차 3.86), 8.26(표준편차 4.37)보다 낮았으며 양국모두 정서적 지원 득점이 높았다. 부적절한 양육 행동 득점에서는 한국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3.64(표준편차 2.00),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4.95(표준편차 2.35), 일본이 각각 2.62(표준편차 2.10)과 4.14(표준편차 2.73)로 한국이 높았으며, 양국모두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득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lt;표 5&gt;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한국(n=820)		일본(n=700)	
	M	SD	M	SD
PDH				
부모역할행동	4.44	2.46	5.97	2.69
도전행동	6.49	2.55	6.50	2.62
양육부담감				
사회적 활동 제한감	7.93	3.36	5.05	3.76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	7.33	2.02	4.73	2.99
양육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	6.90	3.47	4.73	4.10
양육만족감				
양육만족감	12.38	2.51	11.47	2.77
양육효력감				
발달에 대한 이해	4.22	2.10	3.10	2.16
적절한 대응(통제)	5.96	2.34	4.86	2.22
양육환경조성	3.81	2.00	3.20	1.89
양육지원				
수단적 지원	4.40	3.89	6.79	3.86
정서적 지원	7.42	3.84	8.26	4.37
부적절한 양육행동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3.64	2.00	2.62	2.10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4.95	2.35	4.14	2.73

### 3) 부적절한 양육행동 발생에 관한 경로분석

한일 양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육부담감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 발생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PDH, 양육효력감, 양육만족감, 양육 지원, 양육부담감,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각 척도 득점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적합성은 GFI=0.986, AGFI=0.909, CFI=0.963, RMSEA=0.044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허용 범위에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감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발생 모델에 이르는 유효한 경로에 주목하면, PDH의 2인자는 양육부담감

과 유효한 상관관계를 보였고(한국은 부모역할행동 0.338, 도전적 행동 0.155, 일본은 각각 0.313, 0.249), 양육부담감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하위 2인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한국은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0.214,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0.272, 일본은 각각 0.107, 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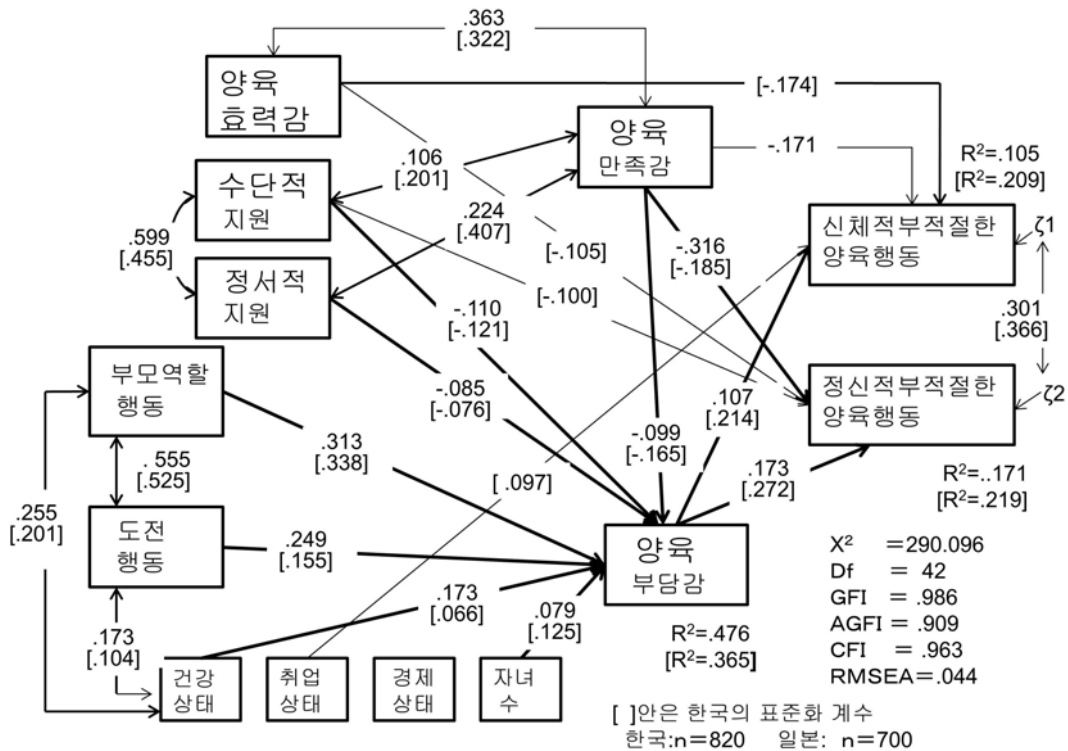
완충요인에 주목하면 양국 모두 양육만족감이 양육부담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한국 -0.165, 일본 -0.099), 양육지원 2인자도 양육부담감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한국은 수단적 지원 -0.121, 정서적 지원 -0.076, 일본은 각각 -0.110, -0.085). 또한, 양육만족감은 정신적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음의 상관을 보였다(한국은 -0.185, 일본은 -0.316). 양국 모두 모친의 건강상태와 자녀수가 양육부담감과 상

관관계를 보였다(한국은 0.066, 0.125, 일본은 0.173, 0.079).

한편, 한국에서는 양육효력감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0.174) 과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0.105) 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수단적 지원도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음의 상관성(-0.100)을 보이는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양육

만족감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0.171).

또한, 양국 모두 PDH 2인자·양육지원 2인자 간, 부적절한 양육행동 2인자의 오차 간에는 공분산이 관찰되었으나, 이 외에도 PDH 2인자와 건강상태, 양육 지원 2인자와 양육만족감,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에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2> 부적절한 양육행동 발생 경로분석 결과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취학전 유아를 양육하는 모친의 PDH와 양육부담감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내적 자원으로서의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 외적 자원으로서의 양육지원이 부적절한 양육행동발생의 완충여부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제시한 인과관계 모델은 한일 양국의 데이터에 적합하고, 양국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관련하는 요인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일 양국의 모친에서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PDH는 양육 부담감에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유발에

강하게 작용하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PDH가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양육부담감으로 작용하지만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양육부담감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김현희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로분석의 표준화 계수에 주목해 보면, 양국 모두 PDH 2인자 중에서 '부모역할행동'은 아동행동특성 요인인 '도전행동'보다 양육부담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2인자 중에는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보다 양육부담감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부담감은 아동의 문제시 되는 행동자체보다는 그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바른 대응이나 역할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양국 모두 핵가족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감,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이지원, 2003; 김현희 등, 2009; 中村敬, 2005; 桑名와 細川, 2007).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적절한 대응을 많이 하게 되며,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명령이나 비난이 많아지고, 처벌적인 훈육이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다(Suchman과 Luthar, 2001). 코야마 등(2014)은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唐軼斐 등(2007)도 같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부모역할행동은 모든 부모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물론 예비 부모가 되는 청소년에게도 학교 보건교육 등을 통해 부모의 역할, 양육방법, 양육의 기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코야마 등, 2014).

둘째, 양육만족감과 양육지원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감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하는 모친일수록 양육 만족감이 높아 양육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양육만족감은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억제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도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정을 통해 가지는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처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김혜진(2002)에 의하면 사회적 맥락에서 제공되는 대처자원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에 의한 협력, 즉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말한다. 그 중에서 특히 남편의 협력은 아내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충족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에게 좋은 모성환경을 조성하는 도움을 준다(한은규, 2003). 박천만과 오카다(2007)는 남편의 양육지원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아내일수록 정신적인 건강도가 양호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양육상황에서 갖게 되는 아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양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곳이 가정이며, 가정 내에서는 남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김현희 등, 2009).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서구에 비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적다. 최근 들어 남편의 양육참가 경향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인의 양육활동에 남편이 협력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현희 등, 2009). 앞서서도 언급한 것 같이, 한일 양국에서는 저출산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경험이 전혀 없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미(歐美)에서는 모친뿐만 아니라 부친

을 포함한 ‘부모양육프로그램’을 20년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가사와 육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小橋 등, 2011). 일본은 2007년에 ‘아동양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小橋 등, 2011). 이 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상호교류, 양육상담, 학습활동 등을 통해 아동양육의 고립, 양육불안 및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거점(setting)을 만들어 주는 ‘지역의 아동양육기능 강화정책’이다. 그러나, 아직 거점의 설치 수나 프로그램 질적인 면에서 지역차가 크며, 실제로 모친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이 실시되었으나 본격적인 양육지원관련법은 2012년에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동양육나눔터’를 통해 이웃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양육의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므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남편의 협력은 양육부담감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며, 아동학대와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므로(박천만과 오카다, 2007; 박지선 등, 2011) 사회적인 확산과 함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조하여 사회적 지원망이나 육아지원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두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인 것은 한국에서는 양육효력감이, 일본에서는 양육만족감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완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양

육만족감과 양육효력감은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모친은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적절한 양육환경의 제공 등 모친으로서의 역할’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의 모친은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 정도’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厚生労働省, 2014).

양육효력감은 학자나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자신감(Teti와 Gelfand, 1991), 또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가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부모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Dorsey 등, 1999)을 말한다. 양육효력감과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양육효력감이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Desjardin, 2003; Sanders와 Wooley, 2005), 높은 양육효력감이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고, 낮은 양육효력감은 학대나 통제적인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Desjardin, 2003; Leerkes와 Crokenberg, 2002). 또한 양육효력감은 양육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원 등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매개역할을 밝히고 있다(이정화 등, 2012; 최형성, 2005; Leerkes와 Crokenberg, 2002).

또한, 양육행동은 부모에게서 가장 일차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요인(이진선과 정문자, 2007)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한경남, 2014).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본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양육행동과 관련한 자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박지선 등,

2011; 최형성, 2005). 양육만족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부모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Lerner 와 Galambos, 1985).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녀 양육 및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공병호와 백승학,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면,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은 양육부담감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왜 한국에서는 양육효력감이, 일본에서는 양육만족감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양국의 양육환경과 양육신념 또는 양육방법의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PDH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모친의 양육부담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은 상호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양육부담감과 부적절한 양육행동 쌍방의 완충요인으로 작용하며, 양육지원도 양육부담감을 저하시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유발을 억제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PDH행동을 저하시키고 양육효력감과 양육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포함한 지역중심의 양육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가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방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척도는 원래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방임이라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탐색적 인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방임은 인자 부하량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금후, 보다 적절한 항목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건강상태, 취로 상황, 경제상태, 자녀 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의 과제로 하겠다.

## 참고문헌

1. 공병호, 백승학. 어린시절 부모로부터의 양육경험이 부모역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4;18(2):1-21.
2. 김현희, 박천만, 이종렬, 신효순.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양육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9;13(2):207-219.
3. 김혜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2.
4. 박지선 외 5명. 맞벌이 남편의 육아참가가 부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11;15(1):37-47.
5. 박천만, 오카다 세츠코.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7;24(4):159-177.
6. 손수민. 영아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가정 및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2009;14(4):268-288.
7. 여진주.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보건사회연구 2008;28(1):3-26.
8. 이정화, 한희승, 최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2012;11(2):89-109.

9. 이지원.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3;7(2):207-216.
10. 이진선, 정문자.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의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007;45(5):85-94.
11. 최형성. 남녀아 어머니 양육효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모형. 인간발달연구 2005;12(4):121-137.
12. 코야마 요시노리, 박지선, 박천만, 나카시마 노조미, 나카지마 카즈오.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직무 및 육아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4;15(1):89-103.
13. 한경남.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력감, 역할만족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014;89:287-315.
14. 한은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2003.
15. 冬木春子(Fuyuki). 乳幼児を持つ母親の育児ストレスとその関連—母親の基本特性及び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の関連—. 現代の社會病理 2000;15:39-56.
16. 小橋明子(Kohashi). 入江明美 子育て動向に関する研究. 札幌大谷大學紀要 2011;41:65-74.
17. 厚生労働省(Koseirodosyo).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 東京:2014.
18. 桑名佳代子(Kuwana), 細川徹. 1歳6か月児をもつ親の育児ストレス (1) —母親の育児ストレス関連要因—. 東北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研究年報 2007;56(1):247-263.
19. 中嶋和夫(Nakajima) 齋藤友介, 岡田節子. 母親の育児負担感に関する尺度化. 厚生指標 1999;46(3):11-18.
20. 中村敬(Nakamura). 地域における子育て支援—育児不安軽減と子ども虐待防止に援助方法の開発に関する研究—. 大正大學研究紀要 2005:1-8.
21. 才村純(Saimura). これからの子ども虐待防止を考える.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母子保健情報 2005:50.
22. 唐軼斐(To) 矢嶋裕樹, 中嶋和夫. 母親の育児関連Daily Hassles と兒に對するマルトリートメントの関連. 厚生の指標 2007;54(4):13-20.
23. 豊田秀樹 (Toyoda). 共分散構造分析 <入門編>. 朝倉書店. 2001.
24. Aramaki M, Tamura T. Social support of the mothers as buffer to their anxiety and affirmative feeling in child rearing. Tokyo Gakugei Univ. Sect 6, 2003;55:83-93.
25. Cmic KA, Greenberg MT.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1990; 61(5):1628-1637.
26. Desjardin JL.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2003;103(4):391-409.
27. Dorsey S, et. al. Parenting 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9;61:295-305.
28. Hillson JC, Kuiper NA. A stress and coping model and child mal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94;14:261-285.
29. Leerkes EM, Crockenberg SC.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2002;3(2):227-247.
30. Lemer JV, Galambos NL. Mother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1985;21(6):1157-1164.
31. Miyamoto M. Child-raising support for parents of infants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aising-associated stress structure and correlations

- with coping behavior. *The Journal of Child Health* 2008;67(5):729-732.
32. Nakajima K. Mother recognition about father's child-rearing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2000;47(15):11-18.
33. Sanders MR, Woolley ML.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2005;31(1):65-73.
34. Suchman NE, Luther 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001; 1(4):285-315.
35. Teti OM, Gelfand DM.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1991;59:1056-1060.
36. Watanabe Y, Ishii M. Factors affecting maternal anxiety concerning child-rearing. A literature department bulletin. Hosei University, 2005;51: 34-46.
37. Yoshida K.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hild abuse Cases, Optimal planning of psychosocial intervention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abusive caregivers. *Japanes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02;43(5): 498-525.